

테러와 전쟁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이라크에 진출했던 가나무역의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정말 흑독했다. 2004년 6월 복면상태의 납치범들 세 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한국인의 애원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됐다. “나는 살고 싶다”고 한국 젊은이는 절규했다. 납치범 한 명이 아랍어로 말했다. “우리는 한국군이 이 땅에서 철군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인의 머리를 보낼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한국이 이라크에 대한 세 번째 최대 파병국이 되면서 한국은 이라크 내 무장단체의 주요 테러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라크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는 오무전기 직원 피격 사건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의 한 간부와 무역업체 직원이 이라크 나시리야에서 민병대에 억류됐다가 14시간 만에 풀린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김선일씨 사건이 터졌다. 모든 한국인들이 진저리를 쳤다. 말 같지도 않은 무책임한 변명으로 어리버리하는 정부당국의 처신으로 더 큰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자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까맣게 잊혀진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간단치 않다.

21세기 벽두 2001년 9월11일 밝은 하늘. 세계 최강국 미국 심장부인 뉴욕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타가 비행기테러에 여지없이 붕괴됐다. 할리우드 귀재들의 영화를 훨씬 능가한 장면이 연일 TV화면을 장식했다. 테러에 대한 분노에 앞서 기상천외한 광경에 세계인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양 날개를 벋어버린 채 후 단숨에 거대빌딩을 향해 돌진한 테러범들의 절묘한 비행술. 양 날개가 벋어버린 채 들이 받아야 빌딩은 상처 깊게 붕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슬로비디오처럼 황갈색으로 피어오르는 폭발연기와 함께 수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쌍둥이 빌딩.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보면 9·11의 땃가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세계의 리더 미국 대통령 부시와 상당수 미국인들은 응징에 들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황무지 바위산에 최첨단 폭탄이 연일 용단폭격으로 가해졌다.

세계의 지성인 상당수는 선과 악이라는 미국식 이분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자업자득'론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노암 촘스키의 그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9·11테러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칸에 대한 전쟁이야말로 테러라고 비판한다.

1964년부터 8년 동안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월남파병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에 사용하려던 의도였다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이라크 파병 역시 국익에 따른 것임이 틀림없다.

특하면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북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등 전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다. 국가간의 이익과 이해관계와 분쟁 등 나름의 명분은 있으나 고통받는 것은 죄없는 민간인들일 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17일 (금)	5월 20일 (월)	5월 21일 (화)	5월 22일 (수)	5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349.40	1355.20	1356.20	1364.40	1363.10
일	본	엔	(JPY)	868.37	870.25	867.83	873.24	869.63
영	국	파운	드	(GBP)	1709.76	1721.51	1723.80	1734.43
캐	나	다	달러	(CAD)	991.00	995.81	995.52	1000.37
홍	콩	달	러	(HKD)	172.97	173.68	173.90	174.83
중	국	원	(CNH)	186.89	187.54	187.49	188.36	188.01
유	로	화	(EUR)	1466.46	1473.44	1472.97	1481.33	1475.69
호	주	달	러	(AUD)	901.33	907.37	904.72	909.78
싱	가	폴	달러	(SGD)	1002.67	1007.43	1006.68	1012.6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8.15	289.11	289.48	290.76